

열매 맺는 삶

The Life That Bears Fruits

마태복음 13:3-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9월 22일 설교

³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⁴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⁵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⁶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⁷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⁸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⁹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금까지 해 오던 신약성경 인물 연구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인물연구는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건데 거의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야 얼마든지 더 있지만 생애를 통해 교훈을 얻을 만큼 자세하게 나온 경우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 비유를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전에 성경공부도 했고 또 설교 때도 가끔 다른 적이 있습니다만 비유를 하나씩 살펴면서 천국이 뭔지,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실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유 가운데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 13:3-23; 막 4:2-20; 눅 8:4-15). 게다가 주님이 뜻을 직접 풀어주신 비유입니다. 세 복음서 모두 비유와 풀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풀이까지 해 주신 비유는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마 13:24-30, 36-43) 예수께서 직접 해 주신 해설이니까 그걸 연구하면 다른 비유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내용은 일단 간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건 싹은 났지만 햇볕에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건 가시에 눌러 못 자랐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끝내셨습니다.

비유를 풀어주심

주님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비유 이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만 뿌리는 사람이 누군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일 수도 있고 주님이 보내신 다른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는 말씀 곧 천국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곧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씨에다 비꼴는지 그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씨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씨는 씨 그래도 있으면 안 되고 싹이 나고 자라서 풀이 되든 채소가 되든 나무가 되든 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는 씨를 말씀하십니다. 곡식이거나 아니면 과일이겠지요. 싹이 나고 자라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씨를 뿌립니다.

땅에 뿌리는 까닭은 뭘입니까? 땅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식물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씨를 아예 물에 넣으면 싹도 나고 자라지만 설 수가 없습니다. 땅에 뿌리면 흙에 있는 물을 흡수해 자라면서 뿌리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제대로 섭니다. 그래야 더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도 맺겠지요. 그래서 땅에 뿌립니다.

말씀이 씨라면 이 씨가 자랄 수 있는 밭은 그럼 뭘겠습니까? 마음이지요. 우리 마음이 천국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을 토양입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지요.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 기대하는 건 꼭 하납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것도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마음은 안 보입니다. 싹이 트는지 자라는지 그건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열매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는 삶이거든요. 걸로 드러납니다. 곡식이든 과일이든 열매가 맺혀야지 안 그러면 씨를 뿌리나마나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대량으로 뿌리지요? 손으로 한 줌 쥐고 이리저리 흩뿌리는데 미리 준비해 놓은 밭에다 뿌리긴 하지만 밭으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길로도 가고 밭 옆에 돌이 있으면 돌에 착륙하는 것도 있고 잡초 밭이 있으면 그리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튀는 것들이 있지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때, 특히 음식 쓰레기 같은 걸 버릴 때 조심조심 하는데도 꼭 밖으로 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걸 아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가고 그렇게 튀는 게 세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첫째는 길가입니다. 밭 옆에 길도 있겠지요. 길가라 했는데 그냥 길이라 보면 됩니다. 밭에 뿌리는 씨가 일부 길로 날아 갑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습니다. 밭에 떨어진 씨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지만 밭은 농부가 있으니 함부로 못 가는데 길에 떨어진 씨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 와서 덤석 물어갑니다. 또 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좋으니까 비 오고 바람 불면 흙에 묻히지요. 그래서 이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길에 떨어진 씨는 하루고 이틀이고 그대로 있으니 언젠가는 새 눈에 띄어 먹고 맙니다.

그럼 말씀의 씨를 뿌릴 때는 어떤 마음이 길 같은 마음입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깨닫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머리가 좋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건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있다면 언젠가는 싹이 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보겠지만 마귀가 그런 기회를 안 줍니다.

길가는 그냥 안 믿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면 ‘난 그런 큰 죄 지은 적 없어!’ 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불신자라고 말씀을 전해 안 듣는 건 아니지요.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길바닥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 다져놓은 길바닥처럼 단단해 말씀이 파고 들 틈조차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밭은 돌인데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였습니다. 일단 흙이 있으니 뿌리는 납니다. 싹도 납니다. 밭에 떨어진 씨보다 더 일찍 납니다. 흙이 얇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싹도 금방 보인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답니다. 뿌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아래로 깊이 뻗어야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돌이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뚫고 들어가 봐야 돌 속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해가 나자마자 말라버립니다. 참 미묘하지요. 식물이 자라자면 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땅에 뿌리를 내려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살려주는 해가 죽이는 해가 되어 버립니다. 물과 햇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진 돌밭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즉각 받습니다. 흙이 얇아 반응은 더 빠릅니다. 화끈하지요? 게다가 기쁨도 있습니다. 왜 기쁘니까? 내 마음에 쏙 드니 기쁘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주님이 늘 내 편이시라 하니 하는 일마다 잘 되겠구나. 시험만 치면 합격이고, 사업을 하면 손님이 줄을 서고, 우리 가게는 번창하고 옆집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해가 떴습니다. 햇살이 따갑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처음 마음에 들었던 그 말씀하고 다릅니다. 남 밟고 일어설 생각 말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오히려 남을 섬기라 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만 아무래도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내 포기합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수만 있다면 햇볕에 더욱 잘 자랄 텐데 뿌리가 없어 말라버립니다. 죽는 거지요. 이런 사람도 불신자이지만 교회에 와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때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 중에도 이런 밭이 있을 겁니다.

가시덤불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가 많이 난 땅인데 이 가시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땅에 내리신 저주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셨는데 같은 가시입니다. 예수께서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도 같은 가시입니다. 그림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탱자나무 가시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가시는 아니고 산딸기나 엉겅퀴처럼 좀 억센 식물에 있는 그런 가시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땅과 물과 양분을 차지하고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 가시덤불은 억센 잡초 밭입니다.

거기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뿌리는 납니다. 잡초가 자라니 물은 있다는 말이지요. 위로 싹도 나겠지요. 그런데 채 자라기도 전에 밀립니다. 생존경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걸 애초부터 경쟁이 안 됩니다. 잡초 아시지요? 그냥 두어도 잘 자라고 안 뽑아주면 천지를 덮어 버리는 게 잡초입니다.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씨도 직접 뿌려야 되고 밭도 준비해 주어야 되고 주변의 잡초도 뽑아주어야 자랍니다. 안 그러면 금방 잡초한테 밀립니다. 죄의 영향이 이렇게 큼니다. 땅이 받은 저주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쁜 건 잘 퍼집니다. 좋은 건 갖은 정성을 다해 보호해도 늘 위태위태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기 벌판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서도 자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하나만 만드셨는데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몸에서 하나를 더 만드신 다음 둘이 하나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라고, 그래서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에 온갖 악센 잡초를 키워 서로 도와 하나가 되는 대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미워해 죽이는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가시덤불에 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오늘도 고통이 참 많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말씀이 마음의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흙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말씀도 일단 뿌리를 내립니다. 위로 싹도 틔웁니다. 그런데 자라지는 못합니다. 이미 다른 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자리도 좋은 양분도 이미 다른 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말씀의 씨는 뿌리 겨우 내리고 싹 약간 들이민 다음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힘센 잡초는 그럼 뭐겠습니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셋 다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풍요, 세상 쾌락입니다 (눅 8:14). 이 세 가지가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말 그대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는 걱정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걱정이야 우리도 다 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말씀의 씨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세상의 풍요는 욕심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걱정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지요. 사람이 걱정만 한다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만족하겠는데 걱정애다 욕심까지 있어 삶이 불행합니다. 충분히 먹고 누리며 사는 사람도 저보다 더 가진 사람 더 누리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 마음에 잡초가 팍 차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가진 사람이 더하다. 끝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밭을 온통 덮어 버리는 게 잡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 풍요에 대해 쓰신 낱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신 본문에 보면 우리말로 “재리의 유혹”이라 번역한 게 있는데 원문은 “재리의 속임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아파테라는 말을 쓰셨는데 속임수라는 말하면서 또 그리스 신화에 속임수의 여신으로 나옵니다. 재물은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대신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재물만 많이 가지면 모든 게 든든할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모으지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대신 섬깁니다. 몇 년 먹을 걸 잔뜩 쌓아놓았던 어리석은 부자가 좋은 보기입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해 놓고 그 밤에 죽었다고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가지면 땅에서 살기는 수월할지 몰라도 죽는 순간부터는 아무 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거기부터가 진짜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재물을 하나님처럼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나 제대로 가겠습니까?

세상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은 말 그대로 재미지요. 삶에 재미라는 게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성에도 쾌락이 따릅니다. 힘든 일을 성취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쾌락이 잡초처럼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 말씀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도 많은 즐거움이 따르는데 그렇지 않고 즐거움 자체를 따라가면 하나님도 말씀도 다 멀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은 밭입니다. 농부가 부드럽게 갈아 비료도 준 기름진 땅입니다. 처음부터 거기 떨어지라고 뿌린 게 씨 아니겠습니까? 거기 떨어진 씨는 당연히 가야 될 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 갔더니 조건이 완벽합니다. 금방 뿌리가 나겠지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흙 속에 뿌리도 든든히 내립니다. 햇볕도 듬뿍 받아 깊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그런 양분이 모여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 하나에 열매는 얼마나 달립니까? 주님은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라 하셨는데 요즘은 종자개량이 돼 가지고 수백 배까지 열립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건 다 똑 같습니다.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도, 돌밭도, 가시덤불도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좋은 땅만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했지요? 깨닫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막 4:20).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아멘 하면서 내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눅 8:15). 그런 마음은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기고 마는데 좋은 마음은 말씀을 잘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데 인내로 맺습니다. 돌밭처럼 조금 힘들다고 때려치우지 않고 아프고 슬픈 환경 속에서도 꼭 참아 이깁니다. 그렇게 참는 동안 줄기와 잎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좋은 마음이라고 잡초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가운데 자리는 내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쪽쪽 뽑아버리면서 말씀 하나 붙들고 참고 견딥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인격과 삶

열매가 무얼 가리키는지는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인격과 삶이 곧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곧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신 말씀처럼 열매가 곧 나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를 보면 됩니다. 내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온유하고 진실하고 자비가 있습니까? 내 말은 참되고 무겁고 한 마디 한 마디가 내 삶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까? 내 행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존경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잘 참고, 열심히 살고, 언제나 의를 추구하는 그런 행동이 되고 있습니까?

돌밭이 참 흔합니다. 사방이 돌밭입니다.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고, 죄로 물든 내 마음에 썩 들면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십 달러 현금하면 백 달러 천 달러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은 마음에 들고 내가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 하시는 하나님은 싫습니다. 예수를 믿어 친구가 생길 때는 좋지만 안 믿는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관두고 갑니다.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겉모습만 신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름도 부를 줄 압니다.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으면서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로 오고 가끔 성경도 보고 교회 일도 한 두 가지 맡아 하는 게 다라면 그저 잡초 사이에 끼어 겨우 숨 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는 열매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요. 두 주인을 섬기려 하면 어느 한 쪽에도 충성을 못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 섬긴다 하면 그건 세상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덤불하고 돌밭이 섞였지요? 한 곳에는 돌만 모여 있고 한 곳에는 가시만 잔뜩 있는 그런 곳보다 아무래도 섞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 가운데 어느 밭입니까? 네 개 가운데 꼭 하나 좋은 밭만 천국입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 21:43).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움, 자비로움, 참 믿음, 그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나는 어느 밭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만 살펴보니 길바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건성으로 대충 듣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밭도 해당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다 하지만 힘든 건 안 하고 싶거든요. 편하게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하다가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가도 ‘복 받아라!’ 하면 귀가 활짝 열려 열른 아멘 합니다. 가시덤불은 더 자신이 없지요?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걱정이지 사실은 욕심입니다. 세상 욕심이 꼭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재미까나 쫓아다닙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뭐든 재미가 첫째라 마음만 먹으면 재미에 푹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이 세 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했습니다. 셋 다 천국 백성의 마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좋은 땅만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내가 열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썼고 바르게 살고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화도 냈지만 화 안 내려고 참기도 많이 했습니다. 욕심이야 끝이 없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는 네 가지 땅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되지요.

주님은 이 말씀을 많은 무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안 믿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까? ‘난 천국백성이 아니구나’ 하고 침체에 빠지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믿음의 씨가 분명 있는데 열매가 부족하다 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는 뜻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다 하는 우리, 그래서 주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우리, 그런 우리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비유 말씀도 씨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밭에 뿌려진 씨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깨달으면 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건성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참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받아 내 마음 한가운데 심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말씀의 씨를 내 세상 옥심과 뒤섞지 않겠다는 각오도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을 믿다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말씀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견디어 반드시 열매를 맺기로 각오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흙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묵은 땅은 말라빠진 땅입니다. 그 땅을 쟁기질을 해 옥토로 만들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묵은 땅 같던 우리 마음이 이제 막 밭갈이를 마친 부드럽고 영양가 많은 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말씀의 씨를 뿌리신 주님이 끝에 가서 도전을 던지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다 귀 있지요?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이게 이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열매 맺는 밭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십니다. 우리 이거 하나 꼭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꼭 새겨 놓읍시다. 열매 맺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내 인격이 열매요 내 삶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권수경 목사)